

# 거취 언급 없이 참패 책임론 선긋기... 호남·비노계 '부글부글'

## 문재인 대표 정면돌파 발언... 커지는 성도 목소리

4·29 재보선 참패로 책임론의 한가운데 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지난 30일 발언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 참석, "박근혜정권의 경제실패·인사실패·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참으로 송구하다"며 "누구를 탓할 것이 저희의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고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어 "이번 선거결과와 저희의 부덕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며 "우리 당은 야당답게 더욱 강력하고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당이 패배한 것일 뿐, 국민이 패배한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한걸음도 물러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거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일문일답 없이 자리를 뚫으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개별 취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당 일각에서 불거질 수 있는 사퇴론 등 거취논란을 사전에 차단,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일해진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상황의 엄중함에 비춰 보다 처절하고 근본적 자성·성찰과 함께 선거 패배 책임자로서의 분명한 사과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아무런 거취표명이 나 패인 분석없이 '미봉'으로 현 상황에 대한 수습을 시도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선도 고개를 들었다.

특히 비노(비노무현)세력은 겉으로는 자중지란을 피해야 한다며 공개적인 말을 아끼고 있지만, 안으로는 무책임한 태도라는 불만과 함께 어떻게든

## "절체절명의 각오로 다시 시작"

### 사퇴론 사전 차단

### 자성 없이 미봉 수습 비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또 무소속 천정배 후보에 '앞마당'까지 내준 호남의원들은 문 대표를 향한 성도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 비노계의 초선의원은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라며 "문 대표는 대선 패배 후에도 의원직을 유지했고, 사면 논란에서도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다른 비노 측 당직자도 "문 대표의 입장발표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호남의 한 의원은 "관악역에서도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동교동계인) 김희철 전 의원의 후보자격을 사실상 박탈한 것"이라며 "호남인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민심도 모른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표의 발언보다 뒤를 이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훨씬 진정성이 있었다는 평가가 일 반적이었다.

우 원내대표는 "저희가 많이 부족했다. 국민 곁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했다. 고된 삶을 힘껏 견디지 못했다. 반성 성찰하고 단합하도록 하겠다"면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아들이고 뼈아픈 선택을 받아들 이겠다. 국민 선택은 항상 옳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4·29재보선에 대해 입장을 밝힌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 재보선 참패 책임지겠다"

### 의원총회서 만장일치 철회 권고

4·29 재보선 결과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의 책임론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주승용 최고위원이 처음으로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최고위원은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문재인 대표 주재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29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



다. 하지만 의원총회에서는 의원 만장일치로 주 최고위원의 사퇴 철회를 권고했다. 주 최고위원은 지난 30일까지 "지도부로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제 소신에는 아직 변화가 없다. 지역 민심과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더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새정치 광주시당 "준엄한 질책 가슴 깊이 새기겠다"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은 지난 30일 서구를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이 보다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거듭나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질책으로 생각하고 그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 여당의 독주와 부정부패를 심판하고자 했던 시민 여러분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해 죄송하다"며 "광주시민여

러분의 뜻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광주시당은 이어 "경선 원칙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고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번 패배가 내리막길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찰하고 낮은 자세로 분골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새정치 계파싸움 고조땀 야권재편 가속도

## 일단 무소속 등 勢규합... 여론 업으면 탄력

### 천정배 호남궤 신당 가능할까

4·29 재보선 광주 서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꺾고 화려하게 여의도에 복귀한 천정배 의원이 호남발(發) 신당 창당을 언급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천 의원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천 의원은 당선 후 첫 행보로 지난 30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뉴 디제이(김대중 전 대통령을 이을 만한 인물)를 만들어 광주와 호남에서 정권교체의 희망을 키우겠다"며 신당 창당에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전패한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친노계와 비노계가 대립할 경우 이탈인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천 의원의 세 규합에 힘이 강하게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내 친노 세력인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적지않은데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인사들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는 호남을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 상당수 야권인사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도록 하는 압박 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천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반(反) 새정치민

주연합에 대한 광주 민심을 적극 활용하고 새정치민주연합내 비노 인사 등을 규합, 야권재편에 나설 경우 그 파괴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천 의원은 국민모임 참여 가능성에 대해 "원래 그쪽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고, 그 생각은 변함없다"고 밝히며 거리를 둔 만큼 국민모임 참여가 아닌 독자적인 정치결사체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우선 호남을 중심으로 한 세력 규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 의원이 이날 "광주와 전남, 전북의 국회의원 의석수 30곳에 지역구 후보를 다 내겠다"는 뜻을 밝힌 것도 이러한 자신의 구상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총선까지 호남지역 30곳 선거구에서 인재를 영입하거나 발굴한 뒤 무소속 연대를 구성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를 상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후 무소속 당선자들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의원들을 규합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커 보인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천 의원을 지지하고 나선 지역 정치권 관계자 상당수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탈락한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앞으로 천 의원의 인재영입 및 발굴이 풀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르르~ 세계 젊은이들이 광주로 몰려온다~

세계 대학생들의 스포츠 올림픽!!!

2015광주하계U대회

UNIVERSIAD KANGJU 2015 FISU

7월

광주에서 함께 해요~

기간 2015. 7. 3. ~ 7. 14. (12일간)  
 장소 광주·전남·전북일원 경기장  
 규모 170개국 20,000여명  
 종목 21개 (정식 13 / 선택 8)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